

## 특별인터뷰 ... 김영우 국회의원

# “군사시설보호법·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복규제 완화돼야”

### 축석고개~대진대학교, 6차선 확장 적극 추진중 “民·軍 상생 프로젝트로 국방 비즈니스 개념 실현시키겠다”

#### ▶포천시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 사항은?

포천·연천 지역은 경기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연천군의 경우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98%, 포천의 경우 32%를 규제받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포천·연천이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교통, 물류, 관광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허가 등 각종 중복된 규제의 완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인프라의 확충은 포천·연천의 성장 동력이며 지역발전의 전제조건입니다. 43번, 37번, 3번 국도의 확충 및 전철 유치 등을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우수한 교사의 확보와 자율형 사립고 및 기숙형 공립고를 설립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주하지 않아도 되는 “농촌지역의 모범적인 교육환경”을 포천·연천에 만들겠습니다.

#### ▶포천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은?

최근 국토해양부에 찾아가 축석에서 하송우리·대진대학교간 도로 6차선 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청와대에도 찾아가 실무진과 협의했으며 수시로 전화통화로 사업추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는 신도시 건설, 기업유치, 산업단지 조성, 관광자원 개발 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리 구간 노선변경을 놓고 국토해양부·구리시·경기2청이 협의 중으로 노선 확정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구리구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구리시 국회의원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철유치를 위해 7월18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실무진과 논의할 계획이고, 의정부 구간 통과를 위해 의정부시, 양주, 동두천시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 ▶포천시는 어떤 도시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와 앞으로 계획은?

소흘, 포천, 선단, 군내 지역은 포천시의 중심지역으로 교육과 문화, 복지가 살아 숨쉬는 활기찬 주거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내촌, 가산 지역은 일부지역은 공업단지로 일부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개발시켜야 할 것입니다. 신북, 장수, 영증 지역은 자연친화적인 기업 또는 농축산업의 중심지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관인, 영북, 이릉, 일동, 화현 지역은 기존 관광지를 한 차원 높여 체험 중심의 관광, 휴양, 레저도시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 신도시, 전철, 특목고, 기업유치, 축산특구, 서울우유공장 유치, 소흘국민체육센터 유치 등이 각 지역의 청사진을 구체화시킬 것이라 확신합니다.

#### ▶포천에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중인 예코디자인시티에 대한 입장은?

에코디자인 시티는 포천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포천 북부지역 개발 사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박윤국 시장님 시절에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백지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경제적 타당성, 콘텐츠 등은 면밀히 검토해 가며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포천시에 골프장 건설에 대한 입장은?

과연 골프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환경 파괴와 주민 피해 규모는 얼마인지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검토하에 골프장 건설은 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에 환경친화적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서비, 레저산업 육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국토이용 및 지역계획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 아래 이뤄져야

겠습니다.

#### ▶우수한 인재의 외부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포천시 교육발전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교육은 도시 지속성장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축입니다. 교육문제만 떠나는 도시에서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수한 교사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사실상 농촌지역이나 다름없는 포천 같은 소도시의 경우 시가 되면서 교원 가산점이 부족하고, 출퇴근과 거주에 어려움 등으로 인해 경륜을 갖춘 교사가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개선책을 점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정부의 고교기본 정책인 자율형사립고와 기숙형공립고를 전환 유치해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지역 대학을 지역특화 산·학 클러스터의 핵심역량으로 되도록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 ▶포천시 등을 비롯한 포천시의외와 경기도의원 등 포천을 이끌어 가고 있는 리더들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습니다.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일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7월9일 서장원 시장님께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정기적인 월례회의를 상설화 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시장·군수님과 시·도의원님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정기회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당시 약속한 공약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도로, 전철 등 기간망 구축을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18대 국회가 개원이 되기도 전에 국토해양부 담당 계장, 과장, 국장 등 실무진을 만나러 과천 정부청사로, 청와대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보좌관과 함께 직접 해당 부서에 찾아가 계장,

과장을 만나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사업을 설명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천시 가 시급하다고 요청하는 사안이 있으면 서장원 시장님과 언제라도 중앙부처 장·차관님을 만나러 갈 생각입니다.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조사와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정활동을 통해 포천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를 풀어나갈 계획은?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을 위한 협약이나 비수도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쟁지역의 규제 문제(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지역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지역의 정치인·시민단체·학술단체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제완화를 위한 법령개정과 피해지역 보상을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해외사례를 요청해 놓은 바 있습니다. 시장·군수님과 시·도의원님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정기회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포천시 신도시개발계획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장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포천신도시개발계획은 포천시가 오랜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사업입니다. 포천신도시는 전철 유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활한 신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우 국회의원(포천·연천)은 7월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06호실에서 본사 최호열 대표이사와 특별인터뷰를 가졌다.

이와 함께 신도시로 인해 발생할 구시가지와 주변도시의 공동화·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구도심 재생계획, 구시가지 삼각형 활성화 등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의원으로서 포천시에 유치할 국책사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3번·37번 도로 확장, 민자고속도로, 신도시, 전철 등의 국책사업을 포천시와 연계된 모든 정치인, 원로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겠습니다. 통일비용, 국방예산에 검토하여 통일대비 전초기지 조성을 위한 예산 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인과 군은 더 이상 갈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군 시설이 지역에 들어갈 때 국가차원에서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군사와 관련된 시설도 교육과 체험, 국가관 확립을 위해 활용되어 비즈니스화 한다면 군이 민간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커다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렇듯 ‘민·군 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국방 비즈니스’ 개념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인구유입, 기업유치, 교육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여러

전문가들과 중장기계획을 세워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약사항 중 인구 30만의 전원형 경기도 7대 경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경쟁력 있는 도시성장전략을 바탕으로 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 확보, 군사시설보호법·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각종 규제 완화 추진, 교통 인프라의 확충, 기업 유치, 민·관·학 주도형 관광·레저 도시 조성, 복합형(1차, 2차, 3차 산업 연동) 지역특화 농·축산 산업 발굴 육성, 특색있는 전원형 신도시 건설사업 등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실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도시의 정주가능 향상을 위해 구시가지 중심의 재생계획을 추진하고 포천천 등 주거지역 주변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주거와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복원시켜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습니다.

향후 10년, 인구 30만의 ‘전원형 경제자유도시’를 목표로 민·관·산·학·정치주체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 ▶포천시 발전을 위한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시민들에게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포천시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지역현안 사업에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입니다. 중앙과 지역에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역민원 해결이 빨라질 것입니다. 지역의 화합력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역의 통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포용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포천신문에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포천신문은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하나가 되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는 일을 수행해왔습니다. 때로는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때로는 지역의 나아갈 바를 바라는 방향에 대하여 나침반과도 같은 역할을 해 오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역사회와 지역민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포천신문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앞으로도 변함 없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리: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친환경 포충기 모기 사냥꾼

# 친환경 포충기 모기 사냥꾼

## 한 여름의 불청객 모기여 안녕!

**모기 사냥꾼의 원리**  
 모기나 날벌레의 빛을 보고 모이며 열을 감지하여 공격하는 습성을 이용, 형광등의 빛과 열로 유인하여 싸이클론 원리에 의한 강력한 흡입장치로 포획합니다.

**제품특징**

1. 본 제품은 빛으로 모기를 유인하여 바람으로 포획하는 장치입니다.
2. 반경 50m 이내의 모기 및 날벌레를 모두 유인하여 포획할 수 있습니다.
3. 본 제품은 싸이클론 원리를 도입하였으므로 흡입력이 매우 강합니다.
4. 삼단스위치 조작으로 팬의 작동을 정지시킨후 조영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야간의 야외활동에 편리합니다.(주변의 조명을 끄면 더 효과적임)
5. 포집망의 달 부착이 간편하여 청소가 용이합니다.
6. 본 제품은 실내용과 야외용(펜션, 가든, 축사, 과수원 등) 두 가지가 있으며, 특히 조명효과가 뛰어나므로 별도의 조명이 필요 없습니다.
7. 본 제품은 살충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사용 장소**

- 펜션, 가든, 정원, 휴게실, 골프장, 공원 등
-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을 키우는 축사
- 포도, 배, 사과, 복숭아, 귤 등 각종 과수원
- 기타 야간 활동이 잦은 곳

실내용

야외용

**왜 모기 사냥꾼이 필요한가?**

모기에서 물린 몹시 가려울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뇌염, 뎅기열(모기가 옮기는 열병) 등 각종 전염병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모기가 옮기는 질병으로서 전 세계에서 매년 약 4억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약 200만 명이 목숨을 잃는 치명적인 질병이며, 일본뇌염 역시 사망률이 높고 회복되더라도 후유증이 남아 평생 고생하게 됩니다. 말라리아나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동물의 피를 빨아먹은 모기만이 병균을 사람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염된 모기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주)대창엔지니어링 | 경기도 포천시 영종면 금주리 1061번지  
**문의 : (031)531-0100(대) · 011-321-3386**

특허출원 제0076891호, 제0119220호